

다보탑·석가탑 '본명' 아니다?
배진달 교수 논문서 주장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은 이름 없는 탑이다? 용인대 배진달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불국사 석탑에 구현된 연화상>을 통해 "통일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다보탑과 석가탑은 창건 당시의 명칭이 아니라 후대에 탑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탄생한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배 교수가 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1708년 회인 스님이 정리한 <불국사사적>과 1740년 동은 스님이 찬술한 <불국사고금창기>가 나오기 전 두 탑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다보탑과 석가탑은 3백년 전 주관자 해석에 의해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것.
하지만 동국대 문명대 교수 등 관계사학자들은 <불국사사적> <불국사고금창기> 등에 두 탑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다보탑과 석가탑이 원래 이름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무리다"고 주장했다. 노병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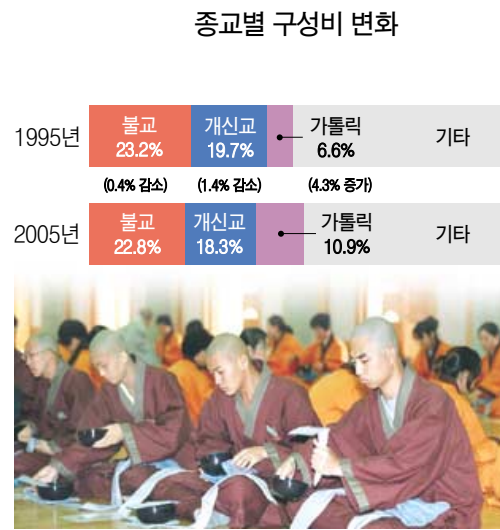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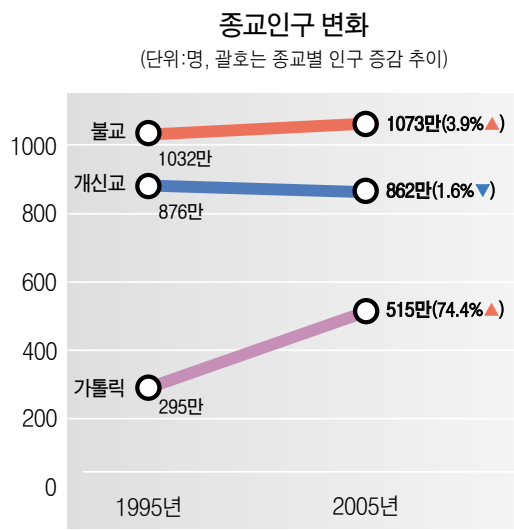
국민 종교구성비

불자 10년새 0.4% 감소

불자수 1천72만6천명, 전체인구 대비 22.8% ... 증가한 종교인 92.5%가 가톨릭

통계청 '2005 인구 총조사'

지난 10년간 불교 신자는 3.9% 증가했으나 종교별 구성비로 볼때 0.4% 감소했다.
이에반해 가톨릭 신자는 514만 6000명으로 95년의 295만1000명보다 74.4%(219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10년 동안 증가한 종교인구 237만3000명의 92.5%를 차지하는 규모다.
통계청이 5월 25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1월 1일 기준 불교 신자는 1072만6000명으로, 전체인구 4728만9000명 중 22.8%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1995년 1032만 1000명에 비해 3.9%(40만5000명)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별 구성비 비율 볼 때 95년 23.2%에서 0.4% 감소했다.
전체인구중 10.9%를 차지한 가톨릭은 종교별 구성비에서도 95년



6.6%에 비해 4.3% 상승했다. 개신교 신자는 861만6000명으로 전체인구 중 18.3%를 차지했지만, 95년 876만명에 비해 1.6%(14만4000명) 줄었다. 종교별 구성비에서도 95년 19.7%에 비해 1.4%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많은 종교인은 원불교 신자였다. 13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0.3% 차지했지만 지난 10년간 49.6%(4만3000명) 증가했다. 유교 인구는 10만5000명으로 0.2%. 지난 10년간 50.4%(10만

6000명) 감소했다. 한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497만1000명으로 1995년 2259만 8000명보다 10.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인구에서 종교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50.7%에서 53.1%로

올라갔다.

성별 종교 인구를 보면 남자는 49.7%, 여자는 56.4%로 여자가 6.7%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종교인구 비율은 남자 50대~60대, 여자 60대~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종교 인구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호남에 개신교 신자가 많았고, 영남과 강원 충청권에 불교 신자가 많았다.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지역 인구 대비 개신교 신자 비율이 모두 20%대인데 비해 불교와 가톨릭 신자 비율은 10%대였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서는 불교 신자가 33~4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는 평균 10%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결과는 200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조사된 면접, 응답자 기업 및 인터넷 조사 방법으로 조사한 것이다. 관련기사 2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내장산 선원 조실 동성 스님



시방세계 9면 4대 종교인 축구대회 현장



도반의 향기 17면 한국장애인복지회 하상춘 회장

경승활동의 현주소 4면 순창고추장의 원류 '만일사' 7면

“사찰도 전문경영 필요하다” 실천불교승가회 日 사찰 견학보고서 내

신중 사찰의 본격적인 도심 진출이 이뤄진 1980년대. 도심포교당 건립은 도시가 발달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전략이었다. 이 시기 불교는 '주머니구식' 사찰운영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성장했고, '주머니구식' 사찰운영은 한계에 직면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불자들의 의식은 불교에도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사찰 운영도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해진 것.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와 함께 사찰경영 연구를 올해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천불교승가회(공동회장 성관·효림)가 5월 16~20일 일본의 사찰을 견학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일본사찰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한국 사찰들이 최근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찰에 국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징은 일본불교의 인목을 잘 보여 주고 있었다"며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배워야 할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스님 위주인데다 공간적 제약이 심한 한국 사찰이 신도생활·신행활동 공간을 확보해 교세를 유지하는 일본불교를 본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수국사를 사찰경영 연구를 위한 시범사찰로 지정한 실천승가회는 사찰의 운영과 관리, 사찰경영 모델 연구, 사찰재정 확충 방안, 신도조직 운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수국사 주지 토진 스님은 "중단과 사찰에 수익을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문화·신행기능 확대·조화로운 불사 신도중심 운영이 성장·변화 '동력'

뒤 '보고서'를 내고 사찰의 경영 전략 개발을 주문하고 나섰다. 견학단에는 토진 일문 의원 법경 우진 도문 스님 등 17명이 참여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견학보고서를 통해 수행 중심의 공간인 한국 사찰이 문화·신행 공간으로서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불사, 신도 중심의 사찰운영 등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했다. 견학단으로 참가한 의원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은 "전통사찰에 새로운 불사를 할 때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끌어낸 일본 사찰의



토진·일문·의원 스님 등 실천불교승가회 일본견학단이 가미쿠리대불 영빈관에서 일본사찰의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실천불교승가회

“달라이 라마 방한 이뤄져야”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 준비위 기자회견

"비폭력 평화운동을 실현해온 노벨평화상 수상자 달라이 라마 방한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연기영)가 5월 25일 달라이라마 방한 발원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연기영 준비위원장은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는 순수한 종교 문화행사로 세계종교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고, 2006노벨 평화상수상자 광우정상회의 역시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모임인데 달라이 라마만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지연 기자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에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액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액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크스님 법어, 범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복장의식, 상량식, 영기천도, 불사)

원심원사(元深源寺) 6.25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위령대재



소실되기전 원심원사 전경사진(1940년)

연천 원심원사는 고구려 보장왕 6년(서기 647년)에 최초로 창건되어 6.25한국전쟁의 병화로 소실되기까지 약 1300여 년간 수많은 선지식들을 배출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장성지로서 호국불교의 중심역할을 물론 중생들에게 무한한 귀의처가 되었던 민족의 성지였습니다.
이제 원심원사가 분단이 낳은 아픈 상처를 달고 반세기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1300여년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법맥이 계승되는 최고의 전법수행도량 및 호국영령을 천도하는 호국통일의 성지를 이루고자 복원불사의 큰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심원사를 거쳐 가신 조사스님들을 비롯한 선지식들과 6.25한국전쟁을 비롯한 유사 이래 수많은 병란(兵亂)을 통해 산화한 호국영령 및 유주무주 고혼영가들을 천도하여 국태민안 및 남북평화통일을 발원하고 생지장도량인 보개산 원심원사 복원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발원코자 이 성스러운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 뜻 깊은 법회에 동참하시어 스님들과 함께 호국영령을 위해 금강경을 독송해 주시고 이 인연공덕으로 가내 평안하시며 구경성불하기를 발원합니다.

원심원사 호국영령위령대재 일시

- 불기2550년(2006) 6월 13일(화) 오전10시 ~ 오후3시30분
- 1부 호국영령 천도의식: 오전10시 ~ 오후 1시
- 2부 호국영령 위령법회: 오후 2시 ~ 오후 3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법어)
- 3부 호국영령 봉송의식: 오후 3시

동참금: 무료

- ※ 1부 천도의식은 전문 법파의식인 영산재로 봉행합니다.
- ※ 문의: 수안사 02)587-4677, 3213 Fax. 02)522-5666 원심원사 031)834-8467, 8469 용진사행회 02)279-1191

찾아오시는 길 원심원사 주소: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354번지

- 서울 → 자유로 → 문산방향 → 전곡 → 연천 → 동막골유원지 → 8565부대 → 원심원사
- 서울 → 의정부 → 동두천 → 영동 → 일동 → 구리
- ※원심원사행 관광버스를 당일날 무료로 운행하오니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서울 조계사 앞 불은사 앞 수안사 앞: 출발시간 오전 7시 경기도 연천역 → 원심원사: 수시로 관광버스 운행 [의정부역(신터리행) 기차출발: 오전 7시20분, 8시20분 출발 연천역까지 1시간 소요]
- ※연천 동막골유원지임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10km거리에서 8565부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당일날 동막골유원지임구 사거리와 8565부대입구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